

광주-혁신도시 중간에 산업단지 조성

가전·車 부품산업 새축 마련...광주인근 市·郡 경제통합 '메트로폴리탄' 구상

박광태 광주시장 취임사서 밝혀

한전 등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나주에 들어서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와 광주시 중간 지점에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된다.

광주시는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산업을 육성시켜 나가기 위해 새로운 산업단지를 나주 공동혁신도시와 광주 사이에 만들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광주·전남 접경지역에 새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데는 전남도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계획은 3일 박광태 광주시장의 취임사를 통해 처음 밝혀졌다.

광주시가 구상하는 새 산업단지는 시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과 가전산업 등의 확장·발전에 대비, 새로운 산업 축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광주시는 이날 새 산업단의 정확한 규모나 위치는 밝히지 않았다.

박 시장은 "새 산업단지는 공동혁신도시 추진 단계에서부터 박준영 전남지사와 많은 의견을 나눈 사안"이라면서 "새 산업의 위치가 광동공단과 20분 안팎의 거리에 있는 만큼 자동차 부품 및 가전부품, 신소재 등 부품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공장이 들어서는 것이 알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산업단지 조성은 새로운 공단의 추가 조성이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광주와 나주·화순·담양·장성 등 4개 전남지역 자치구의 경제를 통합한 광역경제통합도시인 '신 광주 메트로폴리탄'을 만들겠다는 광주시의 장기 플랜과 직결된다.

전남의 동남권과 서남권은 자체적으로 경제 권역을 형성해 발전하고 있는 반면, 중부권에 해당하는 나주·화순·담양·장성은 상대적으로 산업화를 이루지 못해 낙후되고 있다.

광주시는 새 산업단지와 이들 4개 전남지역 시·군을 연계할 경우 전남 중부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부권-광주 경제를 통합해 광역화하면 상호 시너지 효과가 커 경제 인구 250만명의 경제통합도시 형성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나주 일원에 만들어지고 있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파급효과와 광주·전남 중부권을 연결한다는 차원에서 '신 광주 메트로폴리탄' 플랜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새 산업단지 조성은 신 광주 메트로폴리탄 계획의 완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광주와 이들 4개 시·군을 연결하는 '제3순환도로' 건설 사업도 가속화된다. 제3순환도로는 장성~나주와 장성~담양, 나주~화순, 담양~화순을 연결하는 외곽도로로 울해 말에 장성~담양 구간 중 일부(북광주IC~담양 대덕면 17km)가 개통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15년까지 모든 구간이 완공될 예정이다.



국내 최대 함평 자연생태공원 개장
 3일 문을 연 함평 자연생태공원을 찾는 함평 신돌유치원 어린이들이 시설을 견학하고 있다. 함평군 대동면 운교리 일대 50만평 부지에 조성된 생태공원은 나비의 생태와 120여 종의 토종 꽃, 난 등을 감상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다. /위작량기자 jrwi@

경제부총리 권오규 교육부총리 김병준

기획예산 장병완 靑 정책실장 변양군 국제청장 전군표씨 내정

盧대통령 개각 단행

노무현 대통령은 3일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권오규(54) 청와대 정책실장을,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김병준(52)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각각 내정했다고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이 발표했다.

후임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변양군(57) 기획예산처장관이 내정됐고, 기획예산처장관에는 장병완(54) 기획예산처 차관이 발탁됐다. 공석중인 국제청장에는 전군표(52) 국제청 차장이 내정됐다. <관련기사 3면>

이날 발표된 장관 내정자들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 상임위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이달말께 정식 임명될 전망이다.

			
권오규 내정자	김병준 내정자	장병완 내정자	변양군 내정자


전군표 내정자

정부가 국무위원 내정자를 발표한 후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국회는 해당 상임위에서 청문 절차를 완료해 20일 내에 그 결과를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변양군 청와대 정책실장 내정자는 청문회 대상인 국제청장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정식 임명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社 告

'광일춘추' 필진 바꿉니다

지역 전문가들의 모임인 춘추사가 공동진행하는 '광일춘추' 필진이 새롭게 바뀝니다.

본보를 비롯해 부산일보, 매일신문, 제주일보, 강원일보, 대전일보 등 지역 대표신문 6개사가 공동 게재하는 '광일춘추'는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각 분야의 최고 필진들이 참여, 수준높은 칼럼을 선보여 왔습니다. 6일부터 독자들을 찾아가게 될 이번 '광일춘추' 필진들은 각 분야의 전문 지식과 날카로운 관점이 담긴 칼럼을 통해 독자들에게 세상을 보는 다양한 눈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이동희 교장 이만열 위원장 이상규 원장 정응덕 교수

- ◇이동희 민족사관교장
 - ▲서울대 사법대 졸업 ▲서울대 명예교수 ▲제 42대 교육부장관 ▲민족사관교장 ▲한국영린교육협의회 이사장
- ◇이만열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 ▲서울대 국사학과 졸업 ▲숙명여대 교수 ▲제 8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 ◇이상규 국립국어원장
 -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동 대학원 석·박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조서연구위원 ▲경북대 인문대 교수 ▲저서 '방언학' 외 20여권
- ◇정응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미국 남가주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한국행정학회 회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저서 '현대국가의 행정학', '한일 국가기구 비교 연구', '거버넌스와 국가역량' 등

光州日報社

"광양항 개발계획 일시 보류"

姜 해수부차관 "물동량 창출이 미래 결정"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광양항 개발 속도를 골자로 한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정비 용역'에 대해 3일 광양현지에 내려와 정부 입장을 밝혔다.

강 차관은 이날 한국컨테이너부두관리공단 광양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지역 기관단체장 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히고 "우선적인 광양항 개발계획에 변동은 없다"고 말했다. 강 차관의 이같은 발언은 김성진 해수부차관에게 변동을 없애달라는 지역 기관단체장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남부대학교
 남부대학교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 입학문의 062-971-0114 ▶ 062-971-5000

진남과학대학
 세계로 뻗어가는 대학
 ▶ 입학문의 0598-9051 ▶ 0598-360-5000

오늘밤의 월드컵 (4강)

<5일>

독일 vs 이탈리아
 포르투갈 vs 스페인



글로벌 No.1 자동차강만 전문세입소 완성 - 광양제철소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전문 세입소입니다.

